

특집
대교협의 고등교육 이슈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¹⁾

손희권 | 명지대학교 교수

I. 서론

요즈음 대학가를 거닐다 보면 옛날과 달리 다양한 외국어로 대화하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 및 대학 주변 문화를 즐기려는 듯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또한 외국인 교수가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있는 강의실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강의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 한국의 고등교육은 더욱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이 세계 시장에 개방되고 있는 주요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대학과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면 관계 때문에 본 고에서는 필자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정보센터의 기능 정립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¹⁾ 이 원고는 2012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출입국 관리법 제19조의4 제1항).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할 필요성, 방향 그리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의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할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 즉,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학생 수(송출 규모)가 국내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수(유입 규모) 보다 월등히 크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 중 유학 수지 적자 비중이 2010년 현재 51.60%에 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2).

둘째,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즉,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2018년 이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우수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국내에 유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세계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여야 한다. 세계화는 사람, 자본, 지식, 정보, 기술 등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의 활성화와 세계의 긴밀한 상호 연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서도 두뇌 이동(brain circulation)을 활성화하고 국제 사회와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의 방향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확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유치할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이다. Study Korea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2012년까지 1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2011년 현재 총 약 9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서 거의 목표치에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Study Korea 2020에서는 2020년 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조정하였다.

둘째 유치할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이다. 즉,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만 그치지 말고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치할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의 다변화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대 다수는 중국 출신(2011년 현

재 약 66%)이다. 앞으로 자원 외교를 활성화하고 중점 협력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고려하며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요를 감안하여, 유치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아시아는 물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지원 업무는 국제협력관 글로벌정책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실태 조사 및 유치·역량인증제는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조직의 이러한 이원화는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일원화하고 이 일원화된 조직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입각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전략은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

학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립 및 그 운영 비용,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및 그 실시 비용,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평가, 인증 등의 결과 우수사례의 상호 공유를 위한 비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국제장학사업(GKS : Global Korea Scholarship)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정보, 장학금, 건강보험료, 재학 중 인턴십 정보, 졸업 후 취업 정보 및 기회, 귀국 후 추수 지도 및 동문회 결성, 외국인 유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관한 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유치 및 홍보, 국제 및 국내 기준에 부합되는 양질의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외국인 유학생 상호 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학생 간의 교류의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 및 채용, 대학 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의 협조,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와의 협력 관계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의 내용과 범위는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한 세 가지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기존의 법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외국인 유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법령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적 어감을 지닐 수 있으므로 대체 용어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III.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및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p. 13).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은 강화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200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였고,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에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UN Academic Impact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서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UN Academic Impact 제3차 Forum을 개최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방안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에서 전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즉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를 대학에서 양성하고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 보건,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등과 같이 한국이 강점이 있고 국제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들을 양

성 및 재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최근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한류 현상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설립 및 운영 중인 한류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과 연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민관 협력(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대학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내 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V. 국가정보센터의 기능 정립

고등교육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점 및 학위 인증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국가정보센터(NIC : National Information Center)의 기능을 적절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10). 첫째 국가를 대신하여 학위 인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정보 센터, 둘째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의 총괄적인 제공, 셋째 외국의 학위 등에 대한 인정 심사, 인정 관련 지침 및 자문의 제공, 넷째 대학의 UNESCO 학위 보충 설명 자료(Diploma Supplement) 활용의 촉진, 다섯째 학위소지자 신상, 수여기관명, 학위 기능 및 수준, 수강 과목 및 학점 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정보센터의 기능 정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와 출신 국가의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담당할 중앙행정 부서의 조직을 일원화하고, 국가가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재교육하여 국제개발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에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가정보센터를 통하여 학점 및 학위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시안).
서울: 저자.
한국국제협력단(2011). 함께 알아보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저자.
출입국 관리법.

필자소개

손희권 | 명지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를 취득하고,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

문으로는 『교육과 헌법: 헌법 제31조의 구조와 해석한국 발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공저)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교육개발, 국제교원교육 및 교류, 국제학생 이동 및 서비스 등이다.